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7월 17일

CUOMO 주지사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있는 산재 보험 보상율 감소를 발표

근로자 보상 위원회가 보상율 증가를 추천한 후, 행정부는 뉴욕주 사업체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상율의 증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고용주들을 위해 4년 만에 처음으로 산재 보험의 보상율이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제안된 보상율의 증가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원래의 추천 사항을 재고려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보상율은 실제로 2008년 이래 처음으로 1.2퍼센트가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상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수당의 증가 및 사업체들을 위한 경비 감소를 확립한 2007년 산재 보험 개혁 법안의 최종 조치가 이제 뉴욕주에서 완전히 실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상율의 감소 및 보험 개혁의 신속한 실행은 지난 18개월 동안 산재 보험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며, 낭비를 절감하려는 주지사 행정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 경제의 궤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뉴욕주의 사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경쟁적 위치를 유지시켜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여러해 동안, 산재 보험 시스템은 사업체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비효과적이었습니다. 뉴욕주가 실행하는 새로운 조치 그리고 사업체들 및 근로자 커뮤니티들과의 계속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는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비정부 평가 서비스 단체인 뉴욕 보상 보험 평가 위원회는(New York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oard) 올해에 연례 손실 경비 보고서에서 보상율의 증가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주정부는 모든 제출 서류 및 서면 보고를 검토한 후 보상율의 증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산재 보험의 보상율은 다가오는 보험 년도에 실제로 감소될 것입니다. 보상율은 1년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장에서의 경험, 경비 절감 조치의 실시, 새로운 정책 및 절차의 실시 등 다양한 요인들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Benjamin M. Lawsky 재정 서비스부 국장은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극적인 진일보를 했으며, 궁극적으로 주 전역의 산재 보험 가입자들, 보상금 청구자들 및 크고 작은 사업체들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많은 주정부들이 산재 보험 시스템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요즈음, 뉴욕주는 산재 보험 시스템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상율에 대한 이번 결정은 적시에 내리는 올바른 결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적 서비스부의 결정은 부분적으로 산재 보험 개혁의 완료를 포함해 산재 보험에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사태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산재 보험 위원회가 개혁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결정을 제출하고 모든 미해결 조항들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록 개혁으로 인한 절약은 사업체들에 의해 즉시 실현되었지만, 그러한 절약을 지원하는 조치들이 실시된 속도는 좀더 느렸습니다. 2012년 1월 1일에 공개된 영구적 장애 및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판단 지침을 비롯해 최근에 채택된 진단적 검사 네트워크 규정과 함께 산재 보험의 개혁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수당의 지불 햇수 상한에 대한 결정 과정을 완료하고, 의료적 치료 지침을 제정하고, 근로 능력의 상실에 대한 산출 방법을 향상시킨 산재 보험 위원회는 이제 만성 통증의 치료 및 신기술과 업계의 모범 사례를 사용한 보험 시스템의 현대화에 집중함으로써 보험 수당의 제공 속도를 신속화 하고, 상해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낭비, 사기 그리고 고용주, 의료서비스 제공업체 및 고용인의 악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주 AFL-CIO(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 단체 회의)의 Mario Cilento 총재는 "2007년 산재 보험 개혁에서 근로 단체들의 우선사항은 직장에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고 자신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당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뉴욕주 평균 주급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수화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상해 근로자가 다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당에 손상이 오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수당 수준의 지수화를 유지시키고, 상해를 당한 근로자가 필수적 진료를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실시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뉴욕주의 AFL-CIO는 산재 보험 시스템이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상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을 지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정부와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기업위원회의 Heather Briccetti 사장 겸 CEO는 "2007년의 법령은 수당의 증가, 고용주의 경비 절감 및 향상된 배상 청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2007년의 개혁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수당 및 경비에 대한 실제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보험의 보상 경비는 아직도 뉴욕주 기업들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력 문제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주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다음 단계의 시스템 향상을 위해 함께 협조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산재 보험 위원회의 Robert Beloten 회장은 “개혁이 있기 전, 상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대한 손실 급료 수당은 불충분했고, 보험 시스템의 의료 및 배상 경비 또한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즉 고용주와 상해를 당한 근로자 모두에게 효력이 없는 유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업체들 및 노동 단체들과 협조함으로써 산재 보험 시스템은 이제 좀더 유지 가능한 진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력하여 수당의 제고을 향상시키고 시스템 내의 낭비, 사기 및 악용을 추려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eter M. Rivera 노동국장은 “뉴욕주 산재 보상 시스템의 향상은 뉴욕주의 모든 근면한 노동자들을 위해 유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